



강북구의회
GANGBUK DISTRICT COUNCIL

의정활동보도

2015년 6월 29일
(월요일)

강북신문 7면

강북구 메르스 발생현황 공개 촉구

구본승 의원, 신상발언 펼쳐 22일부터 구청 홈페이지 공개 이뤄내

구본승 강북구의회 행정보건의위원장(미아동, 송중동, 번3동)이 강북구 메르스 발생현황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해 구청 홈페이지에 곧바로 공개돼 주민들의 궁금증과 걱정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구본승 의원은 지난 6월22일 개최된 제190회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강북구지역 메르스 확진자 및 격리자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촉구 발언 후 이날 오후 3시를 기준으로 매일 강북구의 메르스 확진자(0명)와 모니터링 대상자(10명) 현황이 공개되고 있어 주민들의 궁금증과 걱정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22일 본회의에서 구본승 의원은 “강북구 주민들은 강북구 지역의 메르스 현황이 궁금하실텐데 6월9일, 6월12일 강북구의회 차원의 메르스 보고회와 보건소 현장활동에서도 적절한 방법으로 공개할 것을 제기했으며 저의 몇 번에 걸친 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구청 홈페이지 어디에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답변에 나선 이인영 강북구보건



구본승 의원

소장은 “확진자가 없는데 격리자 현황을 공개하면 자칫 주민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불안감을 조성할 것을 우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답변했고, 이에 보충발언에 나선

구본승 의원은 “보건소장의 답변 논리는 메르스 발생 초기의 정부의 논리와 같다. 검토하겠다는 것은 공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미 공개한 도봉구, 노원구 등 다른 자치단체의 행정대응의 결과를 확인하여 대처한다면 공개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이다”고 재차 공개를 촉구했다.

이같은 발언으로 정보 공개를 이룬 구본승 의원은 “공개가 많이 늦어졌지만 주민들의 우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상황을 알리고 해결 방법을 함께 찾는 것임을 이번에 다시금 깨달았다”고 말했다.

북부신문 2면

강북구 메르스 발생 현황 22일부터 공개 해

구본승 의원, 신상발언서 타구 사례 들며 비공개 강하게 비판

강북구가 주민 혼란을 이유로 메르스 관련 현황을 공개하지 않다가 지난 22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메르스 관련 현황을 공개하기 시작했다. 이는 강북구의회 구본승 의원이 지난

22일 열린 강북구의회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강북구 지역 메르스 확진자 및 격리자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을 촉구하면서 전격적으로 이뤄지게 됐다.

강북구는 이날 촉구 발언 후 오후 3시를 기준으로 매일 강북구의 메르스 확진자(0명, 이하 6/25현재)와 모니터링 대상자(10명)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기존에는 확진자가 없어 주민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모니터링 대상자에 대해 구는 비공개로 원칙으로 했다.

구본승 의원은 “강북구 주민들이 강북구 지역의 메르스 현황이 궁금함에도 6/9, 6/12 강북구의회 차원의 메르스 보고회와 보건소 현장 활동에서도 적절한 방법으로 공개할 것을 제기하는 등 몇 번에 걸친 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아직

까지도 구청 홈페이지 어디에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이인영 보건소장은 “확진자가 없는데 격리자 현황을 공개하면 자칫 주민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불안감을 조성할 것을 우려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보충발언에 나선 구본승 의원은

“보건소장의 답변 논리는 메르스 발생 초기의 정부의 논리와 같다. 검토하겠다는 것은 공개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이미 공개한 도봉구, 노원구 등 다른 자치단체의 행정대응의 결과를 확인하여 대처한다면 공개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재차 공개를 촉구한 바 있다.

공개가 결정된 후 구본승 의원은 “공개가 많이 늦어졌지만 주민들의 우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상황을 알리고 해결 방법을 함께 찾는 것임을 이번에 다시금 깨달았다”고 강조했다.

최한규 기자(hanstopme@hanmail.net)

신상발언

홈페이지에 메르스 현황 적극 공개 요구

구본승 의원
(무소속/미아동, 송중동, 번3동)

강북구의회, 제190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에 나선 구본승 의원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에 대한 궁금증 해결을 위하여 우리구 홈페이지에 메르스 현황 공개 등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하였다.

구 의원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의 조기 종식을 위해 전국에서 애쓰고 계시는 의료진들과 관계 공무원, 강북구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시는 강북구 보건소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며 메르스 환자들의 쾌유를 기원하고 사망자들의 명복을 빈다”라며, “오늘 자 서울신문의 메르스 관련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에 응한 국민의 94.7%, 의료전문가 80%가 ‘정부의 메르스 감염병원 공개 시점이 늦었다’고 답했다. 이 설문결과 의미는 메르스 진행상황을 국민들에게 신속히 알려주기를 국민들은 원하고 있다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또, “마찬가지로 강북구주민들 또한 메르스 진행상황을 알고 싶어 하며 특히, ‘강북구 지역의 메르스 환자 현황’에 대해 궁금해 할 것이지만 지금까지도 강북구청 홈페이지 어디에도



▲ 구본승 의원.

의원 “오늘 현재, 강북구지역의 메르스 확진자 및 격리자가 몇 명인지? 어떤상황인지? 극소수 몇 명만 알고 있는 것이다.”라며, “종로구청, 강동구청이 주민들께 보낸 메르스 관련 문자와 도봉구청, 노원구청이 홈페이지에 매일 게재하는 메르스 환자 발생현황을 보건소장에게 보내드렸으며 우리구도 메르스 환자현황을 공개할 것을 제기한 바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6월 9일, 6월 12일에 진행된 강북구의회 메르스 대응 보고회와 보건소 현장 활동에서도 ‘메르스 확진자, 격리자 현황’을 적절한 방법으로 공개할 것을 재차 보건소장께 제기했음에도 ‘논의하겠다’고는 했지만 여전히 공개되지 않고 있다.

구의회 현장활동으로 제기한 것이 논의는 되었는지? 도봉구, 노원구처럼 환자발생 현황을 공개하면 혼란이 커진다고 판단한 것인지? 여러 제기가 있음에도 왜 ‘메르스 확진자 및 격리자 현황’이 강북구청

홈페이지에 공개되지 않고 있는지? 메르스 비상방역대책본부장인 박겸수 강북구청장을 대리하여 보건소장의 답변을 요구하였다.

구본승

홈페이지에 공개되지 않고 있는지? 메르스 비상방역대책본부장인 박겸수 강북구청장을 대리하여 보건소장의 답변을 요구하였다.

이에 이인영 강북보건소장은 “확진자는 없는데 격리자를 공개하면 자칫 주민들이 혼란, 불안감 조성 우려하여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라며, “예로 s병원에 왔다갔다해서 혼란을 겪은 일이 있었다며 구본승 의원의 신상발언을 고려해 검토하겠다. 또한, 발생현황을 문의하는 전화는 없었다”고 밝혔다.

구본승 의원은 보충발언을 통하여 보건소장의 답변(공개하면 혼란우려, 불안감 조성)의 논리는 메르스 초기 정부의 논리와 같다. 이런 논리는 여론조사로 확인된 국민의 요구와 배치되는 것이라며, “검토하겠다는 답변은 안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노원구, 도봉구처럼 긴급한 상황 때 발생현황을 공개한 자치구들에서 정말로 혼란, 불안감 조성되었는지 실제 사례를 확인한 후 감염병 등의 긴급 상황 시 주민께 공개여부를 결정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대처를 해야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아쉬울 뿐이다”라고 하였다.

〈박은주 기자 jeji1718@naver.com〉